

# 산지쌀값, 하락 지속... 낙폭 줄어

### 20kg 정곡기준 3만2337원 전순보다 0.2%·70원 떨어져... 이달 중·하순 하락세 꺾일 듯

산지쌀값 조사치가 또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기 들어 연이어진 하락세로 공공비축·시장격리·농협의 2015년산 재고미 판매장구 일원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전순보다 낙폭은 크게 줄어들어 다음 순기의 산지가격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20kg 정곡기준 3만2337원으로 전순 3만2407원(80kg 기준 12만9628원)보다 0.2%, 70원 떨어졌다. 수확기 접어들어 총 1182원 하락한 상황이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 쌀 3만톤 등 39만톤에 대한 매입과 함께 신곡 25만톤에 대한 시장격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은 이번에도 상승세를 타지는 못한 것이다.

특히 2015년산 구곡이 산지쌀값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1만4000톤을 추가격리하고, 1만6000톤은 주정용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3만4000톤을 전량 농협양곡을 통해 판매하기로 결정했지만 쌀값 하락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낙폭이 크게 줄면서 이달 중·하순에 접어들면 산지가격 하락세가 꺾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데다, 농협중앙



'자연을 품었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9일 전주푸드직매장 1호점(송천점)에서 김승수 전주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추진한 '자연을 품은 쌀과자'와 '배를 품은 편강' 제품에 대한 성과품평회와 함께 이날 매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식행사를 가졌다. <관련기사 5면>

회 화원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2015년산 구곡의 판매를 농협양곡으로 일원화 한 조치에 대한 반응이 현장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하지만 반등세가 나타나도 어느 정도 오를 지는 현재로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등숙기 일기불순으로 인한 제현을 하라과 벼 수발이 피해 정도

들이 감안된 통계청의 최종 2016년산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반등 폭이 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RPC를 통해 바닥상황을 점검한 결과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반응"이라면서 "이달 중·하순 이후부터 산지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겠나 한다"고 말

했다. 이어 "회원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2015년산 재고미를 전량 농협양곡을 통해 판매하겠다는 것은 이전과 같이 낮은 가격에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분위기는 형성된 것 같다"며 낙폭 관련 전망을 내놨다. /인재홍 기자

##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 신청

### 12월 7일~13일 전북테크노파크 접수

전북도가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을 발한다. 9월 도에 따르면 현장 중심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생의 취업을 확정시켜 놓고 특성화 교육 과정 이수(2년) 후 기업에 취업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되며, 사업 분야는 ▲ 농생명·식품산업 ▲ 탄소·방사선 융복합소재부품산업 ▲ 자동차·조선해양·기계산업 ▲ 그린에너지산업 등이다. 이에 도내 4년제 대학으로 특성화 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다음달 7일부터 13일까지 전북테크노파크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기업의 전문인력을 해결하고, 학생 취업에 게 등록금 지원과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과 학생에게 매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차·조선해양·기계산업 ▲ 그린에너지산업 등이다. 이에 도내 4년제 대학으로 특성화 과정 개설이 가능한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다음달 7일부터 13일까지 전북테크노파크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기업의 전문인력을 해결하고, 학생 취업에 게 등록금 지원과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과 학생에게 매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 교도관 보호장비 사용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일 교도관이 수용자의 '자해방지'를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했다라도 잠시 간 양손수갑을 뒤로 채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에 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의무관 등이 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난 4월 진정인 강 모씨(남, 50세)는 "교도관들이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손 수갑을 뒤로 묶은 채로 3일 동안 보호실에 격리시켰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도관이 반복적 자해 우려 등을 고려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업무규정 상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24시간(약 4시간 33분) 밤낮으로 양손수갑을 뒤로 착용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김재태 기자

## '진안-무주권'·'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 접수

전북도는 '진안-무주권'과 '전북 서해안권' 2개 권역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진안 마이산과 부안 채석강 등 도내 우수 지질지원의 보전과 관광 및 교육자원으로의 활용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향후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면평가가 끝나면 이달 말부터는 사전 현장 점검 및 현장실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도는 지난 9월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해 2개 권역 지질공원 명칭을 각각 '진안-무주권'과 '전북 서해안권'으로 각각 결정했다. /고민형 기자

##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전북대에 '동지' 뉴실크로드센터로 이전... 전북대-KOICA 의료분야 협력 협약 등 체결도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ODA를 책임질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이하 전북센터·센터장 이우현)가 9일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로 동지를 틀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북대 이남호 총장을 비롯해 전주대 최원철 부총장, 우석대 서지은 부총장, KOICA 김 인 전략기획이사, 전북도청 및 전국 국제개발협력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전북센터는 올 1월 전북대-KOICA-전북대 3자간 협약을 통해 전북대 내에 설립됐으나 그동안 임시 사무실에

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신축된 뉴실크로드센터로 이전하게 됐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ODA 사업에 지방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설된 센터는 각종 ODA 사업 및 모집 설명회, ODA 이해증진 및 세계시민 교육, 사업 참여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북지역의 국제화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은 이우현 센터장의 경과보고 및 센터소개로 시작으로 환영사와 내빈 축사, 현판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소식 이후 전북대와 KOICA 간 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과

전북대 CK-1 국제개발협력 참여인재양성사업단과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간 업무 협력 약정도 체결됐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대학은 최근 네팔 신재생에너지 유기농업 기술 지원과 베트남 언어치료·청각사 전문인력 양성, 방글라데시 양계 분야 협력사업, 우간다 농업 지도자 연수원 구축 등 저개발 국가에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가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우리지역 국제개발 협력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국토부가 익산시민 무시하는 처사"

전문건설협 익산시협, 서부내륙고속도 호남권 구분 발주에 대해 충청권에 비해 10년이나 늦게 건설 예정인 호남권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싸고 추진계획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익산시협의회(전문건설협 익산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역정서를 무시하면서까지 1공구와 2공구로 구분 발주하는 것은 전북도민과 익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전문건설협 익산협의회는 "국토부가 1단계 충청권(평택~부여구간) 구간은 오는 2018년 착공할 계획이지만 호남권(부여~익산구간)은 10년 뒤인 2028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것에 익산지역에서는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지역상공인들은 입장을 전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해당부처는 어떠한 답변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충청권보다 한참 늦게 호남권을 착공하게 되면 백제문화 고도육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완공될 경우 막대한 차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138km의 고속도로 건설에 무려 14년이 걸린다면 과연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앞으로 국토부를 상대로 강경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